

광주지역 중학교 학력 저하 심각 절반이 최하등급 비율 30% 넘어

(과거 수우미양가 증가)

2012학년도 1학년 2학기 내신 성적 분석

일부 학교 2명 중 1명 국·영·수 '가'
구별 격차 커 학력신장 대책 시급

광주·전남 지역 중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신 최하등급인 E등급 비율이 30%가 넘는 중학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예전 성적(수·우·미·양·가)으로 비교하면 전체 학생의 30% 이상이 '가'를 맞은 중학교가 절반을 넘었다는 의미다.

8일 광주일보와 교육업체 하늘고육이 교육정보공시서비스 '학교알리미'의 2012학년도 중학교 1학년 2학기 학년·교과별 성적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중학생들은 전국 평균 대비 수학은 못하는 학생 비율이 낮았고, 반면 국어는 높았다.

지역과 여건에 따른 학력 격차도 컸다. 광주는 동구가 34.0%로 E등급 비율이 높았다. 가장 낮은 남구(27.2%)와 격차는 6.8%포인트나 났다.

남구 학생 100명 가운데 E등급을 맞은 학생은 27명인데 반해 동구는 34 명이나 된다는 뜻이다. 광산구 33.5%, 서구 29.4%, 북구 27.9%였다.

전남은 나주시가 34.9%로 E등급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완도(22.9%), 담양(25.5%), 보성(25.8%) 등은 비율이 낮았다.

학교 간 격차도 눈에 띄었다.

광주의 경우 국·영·수 평균 E등급을 받은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가 전체 85개교 중 44곳(51.8%)에 달했다.

/박정목기자 jw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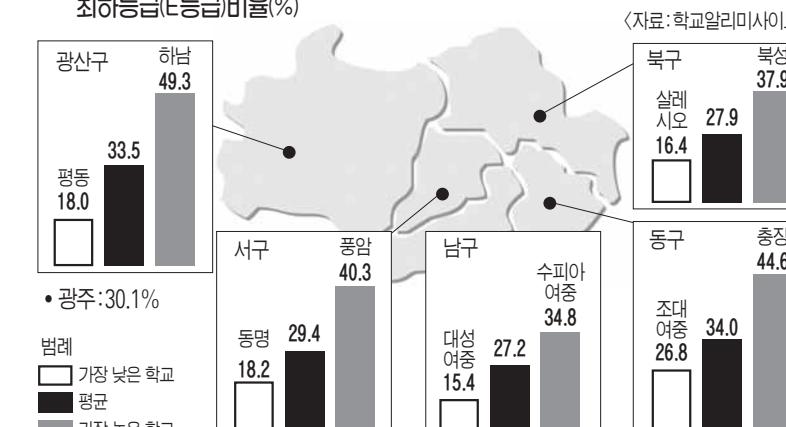
특히 광산구 H중(49.3%)과 G중(46.9%), 동구 C중(44.6%), 광산구 S중(43.3%)과 또 다른 S중(42.9%), 동구 C중(42.3%), 서구 P중(40.3%) 등 7개 학교는 학생 100명 중 40명 이상이 최하등급을 받았다.

수학의 학력 저하가 두드러졌다. 광산구 H중(55.3%), 서구 H중(53%), 동구 C중·서구 S중(51.7%), 동구 C 중(51.6%), 광산구 G중(51.5%) 등 6 개 학교는 학생 절반 이상이 E등급이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시험 난도에 따라 E등급 비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며 "중학교 때 공부 하지 않으면 고교에서 따라가기가 사실상 어려운데도 학습부진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학의 학력 저하가 두드러졌다. 광산구 H중(55.3%), 서구 H중(53%), 동구 C중·서구 S중(51.7%), 동구 C 중(51.6%), 광산구 G중(51.5%) 등 6 개 학교는 학생 절반 이상이 E등급이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시험 난도에 따라 E등급 비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며 "중학교 때 공부 하지 않으면 고교에서 따라가기가 사실상 어려운데도 학습부진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목기자 jwpark@kwangju.co.kr

■ 2012년 광주지역 중학교 1학년 2학기 학교 내신 국·영·수 평균 최하등급(E등급비율(%))



■ 전국 17개 시도별 국·영·수 평균 E등급 비율(%)

순위	시도	수학	영어	국어	평균
1	경남	42.0	35.7	27.6	35.1
2	강원	41.0	35.2	22.6	33.0
3	인천	38.7	34.9	23.2	32.3
4	충남	39.9	33.9	22.5	32.1
5	전북	38.3	35.0	22.1	31.8
6	울산	37.3	31.5	24.1	31.0
7	경기	37.5	33.4	21.1	30.7
8	세종	39.0	30.3	21.6	30.3
9	광주	35.2	31.4	23.5	30.1
10	전남	35.4	31.1	22.6	29.7
11	충북	36.1	30.3	21.1	29.2
12	제주	35.7	29.7	20.2	28.6
13	대전	36.1	27.7	20.5	28.1
14	서울	33.4	29.5	20.8	27.9
15	대구	32.2	25.3	23.1	26.8
16	부산	33.1	24.5	22.2	26.6
17	경북	32.9	27.4	19.2	26.5
	평균	36.6	31.5	22.1	30.1



여수서 변호사 투신 자살

8일 새벽 5시께 여수시 여서동 한아파트 화단에서 장모(45)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장씨 부인은 "전날 밤 산책중 남편이 '너무 힘들다. 마을 단단히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여수에서 10여년간 변호사 생활을 해오고 있는 장씨는 매일 사무실이 있는 순천으로 출퇴근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생리 도벽증 40대 등산복 세트 훔쳐

○ 생리 주기에 물건을 훔치는 생리 도벽증이 있는 40대 여성 몸에도 맞지 않은 등산복을 훔쳐다녔다.

○ 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 모여(48)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광진동에 있는 한 등산복 전문 매장에서 점퍼, 조끼, 디셔츠 등 100만원 상당의 등산복 세트를 훔쳐 달아났다는 것.

○ 경찰은 이씨가 사이즈도 맞지 않는 옷을 훔쳐 되팔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왔으며 '생리 전 증후군' (PMS)을 앓고 있는 점 등으로 생리 주기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중.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금연 축구단' 아시나요

'축구를 통해 담배 끊자'

한때 잘못으로 담배를 피우던 학생끼리 축구를 통해 '금연'을 실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한 중학교 학생 15명으로 이뤄진 '금연 FC'는 흡연을 하다 적발된 학생들로 만들어진 축구팀. 매주 토요일마다 흡연

데 뜻밖에 학생들 스스로 운동장으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렇게 모인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 오전 7시30분 금하고 운동장에서 '금연을 위한 축구'를 시작했고 학교 보건교사의 '금연 교육과 북구 보건소 금연클리닉도 함께 받았다.

처음엔 흡연 전력 탓에 조금 만 뛰어도 가쁜 숨을 몰아쉬던 학생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게 움직임이 빨라

졌다는 게 권 교사 설명이다. 권 교사는 "금연 FC"를 거쳐 금연에 성공한 학생들이 졸업생 까지 포함하면 19명이나 된다"며 웃었다. 졸업 후에도 '금연 FC'를 찾는 졸업생도 많다.

졸업생 A군(16)은 "담배를 끊는데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의미 없게 보내던 주말이 금연 FC 덕분에 가장 기다려지는 주말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권 교사는 "학생들을 선도하는 게 목적이라면 징계가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체벌' 대신 '체육'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권대현 교사 주도로 '금연 FC' 결성

흡연 중학생 15명 토요일마다 경기

제로'를 위한 축구경기를 벌이고 있다.

'금연 FC' 결성은 이 학교 체육 담당인 권대현(43) 교사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흡연 학생을 '체벌'하는 대신, 체육을 통해 자발적 금연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권 교사는 "학생들을 선도하는 게 목적이라면 징계가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체벌' 대신 '체육'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제로'를 위한 축구경기를 벌이고 있다.

'금연 FC' 결성은 이 학교 체육 담당인 권대현(43) 교사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흡연 학생을 '체벌'하는 대신, 체육을 통해 자발적 금연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권 교사는 "학생들을 선도하는 게 목적이라면 징계가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체벌' 대신 '체육'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제로'를 위한 축구경기를 벌이고 있다.

'금연 FC' 결성은 이 학교 체육 담당인 권대현(43) 교사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흡연 학생을 '체벌'하는 대신, 체육을 통해 자발적 금연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권 교사는 "학생들을 선도하는 게 목적이라면 징계가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체벌' 대신 '체육'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제로'를 위한 축구경기를 벌이고 있다.

'금연 FC' 결성은 이 학교 체육 담당인 권대현(43) 교사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흡연 학생을 '체벌'하는 대신, 체육을 통해 자발적 금연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권 교사는 "학생들을 선도하는 게 목적이라면 징계가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체벌' 대신 '체육'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제로'를 위한 축구경기를 벌이고 있다.



무등산 불... 헬기 진화

8일 오후 3시 50분께 광주시 동구 운림동 제1수원지 인근 국립공원 무등산 자리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청 헬기가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이 불은 산림과 잡풀 0.2㏊를 태우고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경찰 '국정원 사건' 관련 권은희 과장 조사

김용판 전 청장 제외 논란

에 서둘러 발표하게 한 의혹을 받으며 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이처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청장의 입장은 경찰이 듣지 않은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비록 김 전 청장은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고 김 전 청장은 이미 퇴직한 상태이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경찰 측 설명은 "경찰 수사를 방해할 수 있고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8일 오후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의 수사 실무책임자였던 서울 송파경찰서 권은희 수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축소·은폐 의혹을 받았지만, 김 전 청장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에서 충간소문 문제로 시작된 이웃 간 다툼이 고소로 이어졌다.

광주서부경찰은 7일 위층의 궁금 거리는 소리를 견디지 못해 찾아갔다가 오히려 욕설을 듣고 위협을 당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충간 소문으로 인한 주민 다툼이 한 달에 한 번 꼬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서 '충간 소음' 다툼 고소로 이어져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에서 충간소문 문제로 위층 주민을 만나려 올라갔는데, 오히려 욕설을 듣는가 하면, 위층 남자가 때릴 듯 위협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충간 소문으로 인한 주민 다툼이 한 달에 한 번 꼬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여성가족부 인정
2013년도 야간방학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